



송암 스님의 유작집 <한국의 범패시리즈-영산>의 CD출반은 삼국시대 이래 전승되어 온 불교범패의 전통을 오늘에 잇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은 생전의 송암 스님 모습(우측 세번째). 사진:선암 스님.



‘한국의 범패시리즈-영산’

영산재 원형 CD에 담았다

송암 스님 구음 테이프 24개 편집
“범패 표준화-교육 교재 활용 기대”



삼국시대 이래 전승되어 온 불교 범패의 전통을 오늘에 잇기 위해 열반한 어장(실벽)이 출중한 범패송암스님의 소리를 기록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열반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보유자 송암스님의 유작집 <한국의 범패시리즈-영산(靈山)>이 첫 결실.

유작 테이프에 담긴 것들을 편집한 것이다. 영산재 이수자인 동국대 교수 범현스님이 송암스님의 열반 이후부터 13개월간 정리했는데, ‘상주권공’, ‘각배’, ‘영산’, ‘관음예문’, ‘깃소리’, ‘호소리’, ‘화창’, ‘백발가’, ‘회심곡’, ‘안채비’ 등 여러 곡의 범패 가운데 영산재를 발췌했다. 송암대종사문도회는 “그동안 구음으로 전수돼 어려움이 컸던 범패 교육의 교재

로 활용하고, 옛 어장 스님들의 소리를 가장 많이 이은 송암스님의 소리를 통해 범패소리의 표준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영산재 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해 한국 범패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도회와 연구소는 스님의 유작 및 테이프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한국의 범패시리즈로 <상주권공>, <회심곡백발가>, <깃소리>, <안채비> 등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02-392-3234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범패 후계자 지정 시급”

영산재는 불교 범패 가운데 영산회상에서 범회경을 설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예술 형식을 빌려 표현한 것이다. 영산재는 지난 1973년 운공, 송암, 벽옹스님 3명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87년 영산재보존회가 단체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87년 단체 지정 때 지공스님과 일용스님도 인간문화재로 추가 지정됐다. 그러나 90년 운공스님, 97년 지공스님이 입적했으며 지난해 송암스님과 벽옹스님이 입적해 현재 팔손의 일용스님 한분만이 인간문화재로 남아 후계자 지정문제가 시급하다. 영산재보존회는 현재 문화재청에 범음, 범패, 작법 분야별, 상주권공, 생전예수제, 수록재 등 기능별로 나눠 문화재 지정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불교소재 공포괴기 연극

아롱구지 소극장 ‘세기 초기...’

무더운 여름밤 더위를 식혀줄 불교소재 공포 괴기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죄업을 지은 자는 내세에서 죄질과 종류에 따라 명부전에 모셔진 사왕(十王)에 의해 심판 받는다는 업연의 과보를 공포적인 분위기로 각색한 연극 ‘세기초기괴기전기’는 5일 대학로 아롱구지 소극장에서 막을 올린 후 오는 8월 19일까지 공연된다.극단 ‘인혜’의

문학소식

작품인 이 연극은 여름날 놀이공원에 있는 ‘괴기전(괴신의 집)’에 들어간 구두미화원 소년 둘 인간 군상들이 괴기전 공간에서 그동안 지은 죄값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제1대왕부터 제 10대왕까지 죄의 판단과 형벌, 그리고 죄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 깨우침의 과정을 중점 묘사한 부분은 관객들의 가슴에 인과의 철칙을 환기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02-764-3375

명작과 가짜명작 ‘비교’

14일부터 예술의 전당 미술관

예술의 전당 미술관이 주최하는 명·청 근대기의 진작, 위작 대비전-명작과 가짜명작’이 14일-8월 26일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린다.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를 비롯 중국 근대화 시대를 연 화가들의 작품 40여점과 이를 모본으로 만들어진 가짜 명작들을 비교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02-580-1511

보성 대원사 티베트미술관 ‘문 열다’

불탑·탱화 등 6백여점 전시

현상계 너머의 세계까지도 세밀하게 표현해 낸 티베트불교 미술의 세계로 안내해 줄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베트불교미술관이 8일 문을 열었다.

티베트불교미술관에는 주지 현장스님이 13년간 티베트와 중국, 몽골 등지를 순례하면서 수집한 티베트불교미술품 60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부처님과 그 제자, 보살 등을 그린 우리나라 탱화와는 달리 태아가 모태에서 자라나는 과정과 질병치료 및 예방에 쓰이는 약초 등 천문 지리 의학 점성술 등 생활문화 전반을 망라한 티베트 탱화 200여점이 눈길을 끄는 작품들이다. 탱화 외에 생명과 우주의 질서를 형상화한 만다라와 불상, 티베트 밀교 경전 및 법구 등도 전시된다.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210평 규모의 티베트불교사찰 양식으로 건립된 미술관 1, 2층은 상설 전시장으로, 지하 1층은 특별전시실과 시청각실, 세미나실, 공연무대 등으로 활용된다.

현장스님은 “티베트 불교미술을 통해 티베트불교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오늘을 보여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061)852-1755



김홍근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

김성동의 최근 소설 <꿈>을 읽었다. 처음 책을 손에 쥐었을 땐, 순 한글 문체가 좀 낯선 듯해서 읽는 속도가 멎곤했었다. 그렇게 천천히 이야기를 따라 가다가 어느 대목에선가 문득 문장들이 춤을 추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책 속으로 확 빨려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부터 단숨에 읽어 내려갔는데, 마지막 장을 덮고 난 후에도 한바탕 봄꿈을 꾸는 것처럼 정신이 아득하여졌다. 뭐랄까? 그동안 애써 물어둔 채 잊고 싶었던 상처가 닦났다고나 할까.

예술은 자기표현이다. 예술가는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를 표현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꿈>은 작가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 속마음은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 상처는 내면으로 파고들어 들어갈 수 없는 치명적인 내상(內傷)이 되었던 것 같다. 절었을 때 이른 그 상처를 오래된 것이지만 아직도 선명한 피를 보해주는 것이기에, 그냥 두면 결국 자신이 죽고 말까봐 작가는 그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작가는 그의 내면에서 저항할 수

김성동 ‘꿈’ (1)

일상 속에서 잃어 버렸던 ‘꿈’ 되새기게

없이 터져 나오는 그 언어의 본수를 막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물이 빠져서 항기로 운 숨이 되는 것처럼, 상처가 꿀을 대로 꿀아서 밖으로 흘러나오자 독자의 마음에 서 쉽게 잊혀지기 어려운 한 편의 아름다운 문학작품으로 승

화되었다. 그 아픔에 전염되어 독자의 마음도 아리다. 하지만 그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꿈’을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것이다.

굳은살이 박힌 발바닥은 웬만한 자극에도 공복 않는다. 그러나 조그마한 가시가 박혀 있는 손끝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온몸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아프다. 영혼도 마친 가지다. 우리 모두는 가장 은밀한 곳에 나뭇잎의 가시를 박아둔 채, 그 사실을 알고 살고 있다. 지극히 작은 상처지만, 어떡대 그곳이 살짝 스치기 되면 깊이 잠들었던 존재가 눈을 뜬다. 그래서 예술가는 존재의 그늘에 감춰져 있는 작은 상처에 민감하다. 때때로 그 상처에서 선홍빛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존재의 피 그것이 곧 예술이다. 따라서 예술은 종종 굳어버린 상처와 관습을 뒤흔들여 우리를 당혹케 한다. 그리고 이미 완고한 체제로 굳어버린 기성종교 교단은 예술의 그런 불경과 도전을 용납하기 어렵다.

20대에 어느 종교소설 현상모집에 승려의 신분으로 응모하여 당선된 첫 단편소설 <목탁조(木鐺鳥, 성불하지 못한 스님의 환상이라는 새)>가 불교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작가를 등록하지도 않았던 승적에서 제척시킨 것은, 따라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진정 놀라운 것은 이번 에 발표된 <꿈>이 그의 첫 소설 못지 않게 자극적인데도, 단행본으로 나오기 전에 조계종이 직접 발행하는 주간신문에 만 2년간 연재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불교의 포용력이 그만큼 넓어진 것이며, 작가로서는 당당하게 복권을 한 셈이었다. 얼마 전 이 소설을 발표하며 기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작가는 자신의 본명은 불교이며, 하산한 지 25년 만에 다시 복직하고 재입산 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계속)

■문학평론가



뮤지컬 ‘우루왕’ 재공연

국립극장, 13-23일

지난해 경주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첫 선을 보였던 국악뮤지컬 ‘우루왕’이 13일-23일 국립극장 해오름 무대에 다시 오른다.

불교성과 바리공주를 모태로 한 국악뮤지컬 ‘우루왕’은 폭력, 살인, 전쟁, 본연로 파괴되어 가는 세계를 바리공주가 구원한다는 줄거리로 전개된다. 여기서 바리공주는 여성성을 상징하지만 그것만을 전면에 드러내지는 않는다. 양과 음,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루어내야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범우주적 철학이 깃들여 있다. 국립창극단 단장 안숙선씨가 작창을, 국립극장 극장장 김명근씨가 연출을 맡아 스펙터클한 전통 무대예술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02-2274-3507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갖고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3배, 두중이나 피염중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목수건의 사각사각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